

왜학서로 만나는 선인들의 삶

정승혜 수원여자대학교 비서과 교수

1. 머리말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북단에 위치하여 끊임없이 다른 문화와 교류하였다. 고대에는 주로 중국과 접촉해 중국어와 한자를 배웠으며 삼국 시대에는 한문으로 자국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중국어를 기반으로 하여 한자로 기록된 한문은 우리말과 문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한자로 고대의 한반도 언어를 기록하는 것이 어려웠고, 한자를 빌려 기록하는 차자(借字) 표기 방법이 발달했다. 또 유라시아 대륙의 동북부에는 교착적 문법 구조를 가진 언어들이 있어서 이들과의 접촉에서도 그 언어들을 학습하여야 했다. 한반도의 북쪽까지 내려와 살고 있던 여진족이나 몽골족의 원(元), 만주족의 청(淸)과 접촉하면서 고려나 조선에서는 여진어, 몽골어, 그리고 만주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했고, 일본과의 접촉에서도 역시 일본어를 배워 의사소통을 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고려 말에 설치된 사역원(司譯院)을 다시 설치하고 한어(漢語,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여진어(후일 만주어로 교체함)를 교육하였는데 이러한 외국어 교육 연구를 ‘역학(譯學)’이라 불렀다. 사역원에서는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많은 교재를 편찬하였는데 이러한 외국어 학습서를 당시에는 ‘역서(譯書)’라고 불렀으며 오늘날에는 이들을 ‘역학서(譯學書)’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중국어 교재는 ‘한학서’, 몽골어 교재는 ‘몽학서’, 일본어 교재는 ‘왜학서’, 만주어 교재는 ‘청학서’라 부른다. 이 글에서는 사역원의 일본어 학습과 교재, 즉 왜학과 왜학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역원과 역과(譯科) 왜학(倭學)

2.1. 사역원과 역과

조선 시대에는 외국어 교육이 주로 사역원(司譯院)에서 이루어졌다. 고려 시대부터 내려오던 이 역학·역과 담당 관서는 1393년(태조 2년)에 ‘사역원’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다시 설치되었고, 갑오경장(1894)으로 폐지되기까지 500여 년간 유지되었다.

사역원에 입학한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분야에 따라 한학청, 몽학청, 청학청, 왜학청에 소속되어 수업을 받았다. 사역원에는 우어청(偶語廳)이란 곳을 두어 활용하였는데, 우어청은 오늘날의 회화 교실 또는 외국어 마을에 해당하는 공간이었다. 우어청을 통한 회화 전용 교육은 초기에는 잘 시행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었다. 삼변의 난으로 대륙의 판도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던 1682년(숙종 8년)에 숙종은 도제조 민정중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학우어청을 설치했다. 이후 몽학, 청학, 왜학 우어청이 차례로 설치되었다. 각 우어청의 훈장은 주로 모어 화자들이나 해당 외국어를 잘하는 회화 교수들

이 많았다. 우어청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오로지 전공 외국어만을 사용해야 했다. 만일 규정을 어겼다가 적발되면 횡수에 따라 매를 맞았다. 현직 관리로 한 달에 보름 동안 사역원에 나와 외국어 공부를 하던 강이관이나 습독관이라면 초범의 경우 경고, 재범의 경우 차지(次知: 주인의 형벌을 대신 받는 노비) 한 명을 가두었다. 이어서 3범은 차지 두 명을 가두고, 5범 이상이 되면 형조에 공문을 보내어 파직한 다음 1년 동안 벼슬을 주지 않았다.

사역원 생도들은 매월 2일과 12일, 22일, 6일과 16일, 26일에는 정규 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오늘날의 기말고사와 비슷한 원시(院試)를 치렀다. 또한 사역원 생도가 정식 역관이 되려면 역과에 합격해야 했다.

역과(譯科)는 조선 왕조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관 충원을 목적으로 건국 초부터 실시되었다. 역과에는 한어(중국어)·몽어·여진어·왜어의 4과가 있었는데, 한어과는 국초부터 실시되었으나 몽어과는 1419년(세종 1년) 4월에, 왜어과는 1441년(세종 23년) 7월 이전에, 여진어과는 1451년(문종 1년) 4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지방의 역학은 지방 요충지에 설치되었다. 1428년(세종 10년)에는 이미 있었던 평양 사역원의 예에 따라 의주에 한학이 생기고, 1430년(세종 12년)에는 내이포·부산포·염포에 왜학을, 1433년(세종 15년)에는 황주에 한학을, 1469년(예종 1년)에는 웅천·동래에 왜학을 각각 설치하였다.

시험 과목은 (해당 외국어의) 전문서, 경서, 《경국대전》(법전)을 필수 과목으로 하여 성적은 통(通) 이 분(二分), 략(略) 일 분(一分), 조(粗) 반 분(半分)으로 계산하여 분수(分數)가 많은 자를 선발하였다. 역관 등용의 시험 방식은 주로 강서(講書), 역어(譯語), 사자(寫字) 등 세 가지 형식이 있다. 강서에는 경서를 보면서 물음에 답하는 임문(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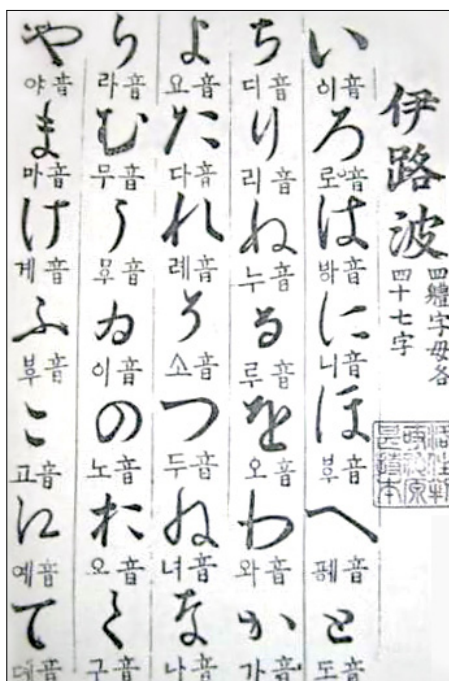
文) 형식과 구어체 교재를 시험관 앞에 펴 놓고 외우거나 책을 보지 않고 물음에 답하는 배강(背講) 형식이 있다. 역어(譯語)는 외국어로 법전을 번역하는 형식이고 사자(寫字)는 한학을 제외한 외국 문재문학, 왜학, 여진학(청학) 등을 바르게 쓰는 형식이다.

2.2. 역과 왜학의 과시서(科試書)

역학서의 서명은 《세종실록》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사역원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 교재인 역학서는 그들을 시험하여 역관에 임명하는 출제서로,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구한말까지 지속된다. 일단 법전에 규정된 역과 및 역관 취재의 과시서들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사역원 등에서 각종 시험에 대비하여 사용하는 외국어 교과서가 되었다. 그러나 언어는 변화하는 것이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말과 상대국의 언어가 변화하고 그에 맞추어 역학서 역시 개편되었다. 역학서의 개정은 《경국대전》에 규정된 역과 및 역관 취재의 출제서를 바꾸게 된다. 그러나 법전의 변경은 대단히 어려운 일로, 사역원을 비롯한 외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같은 서명의 역학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하였다.

이 가운데 일본어 학습서인 왜학서의 서명을 살펴보자. 《세종실록》 권 47 세종 12년 상정소(詳定所)의 계(啓)에 의하면, 왜훈(倭訓)으로 ‘《소식(消息)》, 《서격(書格)》, 《이로파(伊路波)》, 《본초(本草)》, 《동자교(童子敎)》, 《노걸대(老乞大)》, 《의론(議論)》, 《통신(通信)》, 《정훈왕래(庭訓往來)》, 《구양물어(鳩養勿語)》, 《잡어(雜語)》’ 등 11종의 왜학서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경국대전》의 역과 출제서에는 여기에 ‘《응영기(應永記)》, 《잡필(雜筆)》, 《부사(富士)》’가 더해져, 14종의 왜학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왜어)노걸대》는 사역원에서 편찬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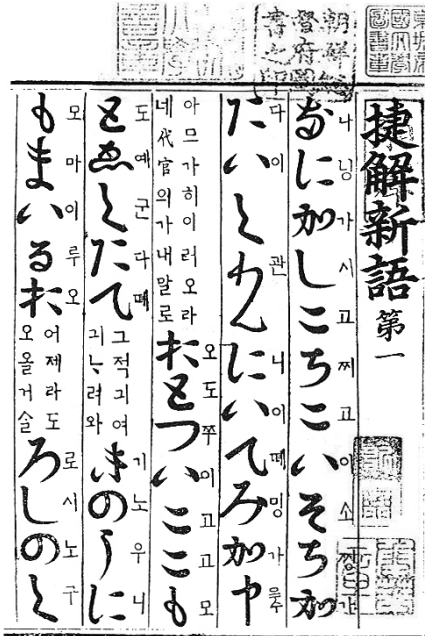
[그림 1] 《이로파》(조선 초기 왜학서)



13종의 왜학서는 주로 당시 일본에서 사용되던 훈몽(訓蒙) 교과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첩해신어(捷解新語)》는 임진왜란 후 사역원에서 일본어를 학습하기 위해 편찬한 대표적인 왜학서이다. 책 이름 ‘첩해신어(捷解新語)’는 ‘새말을 빨리 깨우친다’는 뜻으로 여기서의 ‘신어(新語)’는 임진왜란 이후 실제로 일본인들에게서 배운 새로운 일본어를 말한다. 《첩해신어》는 현재 원간본과 그의 복각본, 1차 개수본의 복각본(《개수첩해신어》), 그리고 2차 개수본의 중간본(《중간첩해신어》, 규장각 등 소장)의 3종이 알려져 있다.

[그림 2] 《첩해신어》 원간본(조선 후기 왜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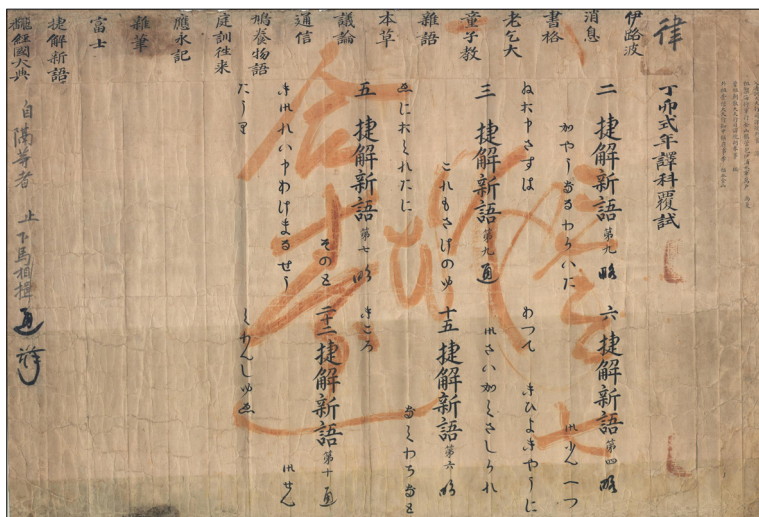


역과의 과시서는 아니었으나, 역관들이 일본어 학습을 위해 간행한 《인어대방(隣語大方)》과 대역 어휘 사전이라 할 수 있는 《왜어유해(倭語類解)》가 남아 있다. 또한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대마도의 통사(역관)들이 사용했던 한국어 교재를 일본어 교재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교린수지(交隣須知)》이다.

2.3. 역과 왜학의 시험 답안지

역과 왜학 시험은 어떻게 치러졌을까. 왜학 역관이었던 현계근(玄啓根, 1726~1799)이 역과 왜학 복시(覆試) 건륭정묘식년(乾隆丁卯

[그림 3] 역과 왜학 복시 건륭정묘식년시 현경제(계근) 시권(답안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크기 109.5×74.5cm)



式年)에 입격한 시권(試券, 시험 답안지)이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남아 있다(그림 3) 참조).¹⁾

《통문관지(通文館志)》에는 “《첩해신어》는 10권 중에서 7곳을 추천하여 글자를 베껴 쓰게 하고 《경국대전》의 번역은 한학과 똑같이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시험에서 현계근은 《첩해신어》의 권 9에서 2문제, 권 7, 권 4, 권 6, 권 10에서 각 1문제, 모두 6문제를 풀었다. 위의 답안지를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자료는 필자가 2009년 10월 국립국어원의 디지털 한글 박물관 전시를 기획하면서 얻은 자료임을 밝힌다.

(1) 오른쪽 접혔던 부분의 작은 글씨: 피봉(皮封), 비봉(秘封).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봉한 부분. 채점이 끝난 후에 열도록 되어 있다. 거자(舉子: 시험 보는 사람)의 신분과 성명, 나이, 본관, 거처와 거자의 사조(四祖: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에 대하여 거자와의 관계, 신분과 이름, 외조(外祖)의 본관을 쓴다.

(2) 상단: 역과 왜학 출제서

《이로파(伊路波)》, 《소식(消息)》, 《서격(書格)》, 《노걸대(老乞大)》, 《동자교(童子敎)》, 《잡어(雜語)》, 《본초(本草)》, 《의론(議論)》, 《통신(通信)》, 《구양물어(鳩養勿語)》, 《정훈왕래(庭訓往來)》, 《응영기(應永記)》, 《잡필(雜筆)》, 《부사(富士)》, 《첩해신어(捷解新語)》, 《경국대전(經國大典)》(《이로파》이하 《부사》까지는 조선 초기의 왜학서이고, 후기에 오면 《첩해신어》 하나로 통일된다.)

(3) ‘첩해신어(捷解新語)’ 위의 번호 二, 三, 五, 六, 十五, 二十二: 추가 번호

일본어 시험의 사자(寫字: 외워서 베껴 씀)를 위해 시험 볼 곳을 추천한 번호로 추정된다.

(4) 시험의 출제

① 사자(寫字): ‘사자(寫字)’는 《첩해신어》 본문을 외워서 베껴 쓰는 것인데, 채점은 매우 엄격하여 첫째 문제가 ‘약(略)’, 둘째가 ‘통(通)’, 셋째, 넷째, 다섯째 문제는 ‘약(略)’, 여섯째 문제가 ‘통(通)’으로 ‘약(略)’이 4개, ‘통(通)’이 2개, 모두 8푼(分)의 푼수(分數)를 얻었다. 이

二：第九 - かやうなるわいたねお申さすは

가요우나루와이다녀오무산숨바 [일본어 주음]

이러툃흔 우음 바탕을 니르디 아니면 [언해문]

이러한 웃음거리를 말하지 않으면 [현대역]

: 첩해신어 권 제9 11b 4~5행을 사자(寫字)한 것이다.

三：第九 - これもさけのゆゑにおくれたに

고레모사계노유에니오구레따니 [일본어 주음]

이도 술의 타스로 떠덧습더니 [언해문]

이도 술 때문에 뒤쳐졌더니 [현대역]

: 첩해신어 권 제9 7b 2~3행을 사자한 것이다.

五：第七 - そのときおれい申あけまるせうたうり

소노도기오레임무시양계마루쇼우도우리 [일본어 주음]

그 저기 御禮 술을 줄을 [언해문]

그 때 예를 말씀드릴 줄을 [현대역]

: 첩해신어 권 제7 14b 5행~15a 1행까지 사자한 것이다.

六：第四 - 御ふんへつあって きひよきやうに ごさいかくさしられ

오희 베풀안 데 기비요기요우니 오사이가구사시라레

[일본어 주음]

분별 두서 氣味 도케 직간헐음소 [언해문]

분별하셔서 기분 좋게 재간하십시오 [현대역]

: 첩해신어 권 제4 3a 3~6행을 사자한 것이다.

十五：第六 - なくわちなときころ

낭과 지난도강고로 [일본어 주음]

아므 둘 아므 삐 [언해문]

아무 달 아무 때 [현대역]

: 첩해신어 권 제6 12a 2~3행을 사자한 것이다.

二十三：第十 - 御せんくわんしゅゑ

오섬 관 슈에 [일본어 주음]

御僉官衆에 [언해문]

첨관들에게 [현대역]

: 첩해신어 권 제10 4b 5~6행을 사자한 것이다.

시권에서 사자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첩해신어》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② 역어(譯語): 역어는 《경국대전》을 해당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인데, [그림 3] 왼쪽 끝 부분에 ‘자격등자(自隔等者) 지하마상음(止下馬相揖)’이란 과제(科題)가 보인다. 이것은 《경국대전》 권 3 예조(禮曹) ‘경외관상견(京外官相見)’ 조의 내용 중 일부를 일본어로 번역하라는 것이었다. 역어의 평가에서는 ‘통(通)’을 받았다.

(5) 시험지의 채점

시권(시험 답안지)의 채점은 분수(分數)에 따랐는데 《경국대전》 권 3 예전 제과 강서조에 ‘通 二分(통 이푼), 略 一分(약 일푼), 粗 半分

(조 반폰) (寫字譯語同: 사자와 역어 같음)’이라 하여 종합 점수에 따라 차례(次第)를 정하였다. 현계근의 점수는 모두 7문제에 ‘通’이 3개, ‘略’이 4개로 10푼의 점수를 받았다. 14푼 만점에 71%의 성적이었다.

(6) 시권 중앙에 붉은색으로 크게 쓴 부분

‘합(合)’이란 글씨와 시험관의 수결(手決: 서명)이 보이고 ‘三之七’이라는 성적이 표기되어 있다. 3등 7인(3등 일곱 명 중 한 명)으로 합격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3. 왜학서의 내용을 통해 본 일본과의 교린 관계

3.1. 《첩해신어》의 편찬

《첩해신어》는 강우성(康遇聖, 1581~?)이 임진왜란 때 왜군의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와서, 왜관에 머무는 왜인을 접대할 때와 통신사행을 수행할 때 쓰던 말들을 모아 10권으로 편찬한 것이라 한다(《통문관지(通文館志)》 권 7 인물 강우성(康遇聖) 조의 기사 및 권 8 집물 첩해신어판(什物 捷解新語板) 조의 기록). 이 책의 초고를 작성한 강우성의 일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우성이 쓴 초고는 1670년(현종 11년)에 사역원 도제조 정태화의 계청으로 교서관에서 주자로 간행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교서관에서 간행된 것은 1676년의 일이다. 그런데 《개수 첩해신어》의 범례에 따르면 ‘新語之刊行(신어지간행), 雖在肅廟丙辰(수재숙묘병진), 而編成則在萬曆戊午間(이편성칙재만력무오간), 故彼我言語各有異同(고 피아언어각유이동), 不得不筵稟改正(부득불연품개정)’이라 하여, 비

[표 1] 강우성(康遇聖) 연표

연도	사건 및 출전
1581년	출생
1592년(12세)	일본에 포로로 잡혀감. 일본의 관원전쟁(關原戰爭, 1600)에 참여. (강홍중 《동사록(東槎錄)》 갑자년 11월 31일 조의 기록)
1609년(29세)	과거 급제(만력기유증광시 삼등십삼인)《역과방목》
1613~1615년 (33~35세)	동래 부산포의 왜학훈도로 부임.(《인조실록》 권 20 인조 7년 5월 정유 조의 기록) 광해군 5년(1613), 광해군 7년(1615)을 비롯, 다섯 차례 부산포 왜학훈도 역임(《통문관지》 권 7 인물 강우성 조)
1617년(37세)	도일(渡日)-일본의 회답사검부로쇄환사: 정사 오윤겸, 부사 박재, 종사관 이경직을 따라 오사카(大阪) 후시미(伏見)에 감(이경직의 《부상록》(1617), 오윤겸의 《동사록》의 기록).
1618년(38세)	첩해신어 초고 완성《개수 첩해신어》 범례의 기록)
1624~1625년 (44~45세)	도일-회답사: 정사 정옥, 부사 강홍중, 종사관 신계영 등을 따라 에도(江戸)까지 감. 상통사로서 따라감(강홍중의 《동사록》에 기록).
1636~1637년 (56~57세)	도일-통신사: 정사 임광, 부사 김세렴, 종사관 황시 등을 따라 에도(江戸)까지 감(임광의 《병자일본일기》에 기록).
1652년(72세)	중병을 앓았다는 기록(《변례집요》 권 16 임진 8월 조)
1676년(96세)	《첩해신어》간행. 이때까지 살아 있었는지는 불명. 언제 사망했는지는 미상.

록 간행은 1676년에 되었지만 그 편성은 이미 1618년(광해군 10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우성이 역과에 입격(1609, 광해군 1년)한 후 부산의 왜학훈도로 있으면서 관왜들과의 통역 및 왜학 역생들의 일본어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1617년(광해군 9년)부터 1636년(인조 1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통신사행에 참여하여 도일한 경험이 있음을 감안하면, 《첩해신어》의 원고는 1618년에서 1636년 사이에 그 초고가 이루어져 1676년에 간행되기까지 몇 차례 수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마련된 수고본(手稿本)은 필사되어 전해졌으며 어느 시

기언가 정음으로 대역(對譯)과 주음(注音)이 이루어졌다. 이 원간본의 정음 대역과 주음은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복수의 인원이 분담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²⁾ 이 책은 이후 언어의 변화에 따라 1748년(영조 24년), 1762년(영조 38년) 두 번에 걸쳐 수정되어 간행되었다.

3.2. 《첩해신어》의 내용

우리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왜학서인 《첩해신어》의 내용을 통해 당시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교린 관계가 대마도를 중개자로 해서 새롭게 전개되어 감에 따라, 접대 사례가 새롭게 바뀌고 왕래도 오로지 대마도를 중심으로 하여 행해지게 되었다.

이 중에서 부산과 대마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조선과 일본의 교린 관계를 대표하는 것은 통신사행인데, 이 통신사행이 안정기로 접어드는 것과 시기를 같이하여 《첩해신어》가 등장했다.

[표 2] 조선과 일본의 왕래 형태

조선 → 일본		일본 대마도 → 조선	
명칭	내용	명칭	내용
문위행(問慰行)	대마도의 도주를 상대로 감	차왜(差倭)	대마도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보냄
통신사행(通信使行)	일본과 관백을 상대로 감	송사(送使)	대마도에서 해마다 보냄

2) 그 증거로 각 권의 대역과 주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첩해신어》의 간행(1676) 시에는 강우성이 살아 있었다고 해도 96세의 노령이므로 간행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강우성은 《첩해신어》의 초고본만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첩해신어》의 권 1에서 권 8 전반부까지의 내용을 교린 관계에서 나타난 네 종류의 왕래 형태와 비교해 보면, 권 1에서 권 4까지는 일본에서 조선 쪽으로 보내오는 경우를, 권 5에서 권 8까지는 조선 쪽에서 일본으로 가는 경우를 각각 소재로 하고 있다. 또한 전반부에서는 차왜 중에서 보내오는 빈도가 잦은 송사의 경우를, 후반부에서는 문위행과 통신사행에서 중요도가 높은 통신사행의 경우를 각각 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첩해신어》는 권 1부터 권 4까지와 권 5부터 권 8까지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서 절목별로 언어 장면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본래 《첩해신어》의 원간본에는 대화 장면에서 주(主)와 객(客)의 표시도 없고,³⁾ 장면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 1차 개수본부터 주객의 표시와 장면별 절목이 설정되었는데, 2차 개수에서는 1차 개수의 절목을 삭제·변경하는 작업과 함께 권 10의 절목을 새로 상정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첩해신어》의 권 1부터 권 4까지는 대마도에서 1년마다 보내오는 송사에 대한 대접 장면을 보여 주는데, 각각의 절목에 따라 장면 전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與代官初相接(여대관초상접: 대관을 처음 만날 때) - ② 送使船問情(송사선문정: 송사선의 문정례에서) - ③ 茶禮問答(다례문답: 다례할 때) - ④ 饌品器皿論難(찬품기명논란: 찬품의 그릇 수에 대한 논란) - ⑤ 封進物看品(봉진물간품: 봉진물을 간품할 때) - ⑥ 下船宴問答(하선연문답: 하선연할 때) - ⑦ 始行重盃禮(시행중배례: 중배례를 시행할 때) - ⑧ 送使催答書(송사최답서: 송사의 답서를 재촉할 때)

3) 여기서 주(主)는 조선 측, 객(客)은 일본 측으로 구분된다.

- ⑨ 銅鑑看品(동납간품: 동납을 간품할 때) - ⑩ 公木入給(공목입급: 공목을 들일 때)

이를 ≪증정 교린지(增訂 交隣志)≫(1802, 순조 2년)의 행사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증정 교린지≫ 권 3의 내용

번호	행사례	참석 인물		참고
		주(主)	객(客)	
1	다례의(茶禮儀)	동래부사(東萊府使) 부산첨사(釜山僉使) 훈도별차(訓導別差)	송사 일행	예단다례
2	숙공조반식 (熟供早飯式)	훈도별차	송사 일행	하선다례 다음 날 시행 다례의 참고
3	진상물건간품식 (進上物件看品式)	부산첨사 훈도별차	송사일행 (도선주)대관	공무역간품부 하선연과 같은 날 시행
4	왜사숙배식 (倭使肅拜式)	훈도별차	송사 일행	하선연과 같은 날 시행
5	연향의(宴享儀)	동래부사 부산첨사 훈도별차	송사 일행	중배례부
6	부물봉상의 (賻物捧上儀)	동래부사 접위관(接慰官) 훈도별차 차비관(差備官)	송사 일행 대관	송사하선다례에 참고
7	진향의(進香儀)	접위관 동래부사 훈도별차 차비관	송사 일행(정관)	다례에 참고
8	진하의(陳賀儀)	접위관 동래부사 부산첨사 훈도별차 차비관	송사 일행	진상연과 같은 날 시행 송사하선연

번호	행사례	참석 인물		참고
		주(主)	객(客)	
9	도서전급식 (圖書傳給式)	당상차비관(堂上差備官) 훈도 당하차비관(堂下差備官) 별차	송사 일행 관수왜 재판왜 금도왜	
10	주봉배식 (畫奉杯式)	훈도별차	송사일행	

위의 행사례 10례 중 송사(送使)의 경우를 예로 하고 있는 것은 6례이다. 그 가운데 행사례 1부터 5까지는 시간적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다. 행사례 1은 하선(下船), 다례(茶禮), 진상간품다례(進上看品茶禮), 예단입급다례(禮單入給茶禮) 중에서 하선다례(下船茶禮)를 예로 하고 있고, 행사례 5는 하선연(下船宴), 별연(別宴), 노차연(路次宴), 명일연(名日宴), 상선연(上船宴) 중에서 하선연을 예로 하고 있는데 행사례 1부터 5까지의 시간적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下船茶禮(하선다례: 하선 후 다례) - ② 熟供早飯式(숙공조반식: 익은 음식을 제공함) - ③ 進上物件看品式(진상물건간품식: 진상물을 간품함) - ④ 倭使肅拜式(왜사숙배식: 왜사와 인사를 나눔) - ⑤ 下船宴(하선연: 하선 잔치)

이를 <<첩해신어>>의 장면 전개와 비교하면 ④ 왜사숙배식만 제외하고 ③ 다례문답부터 ⑧ 송사최답서까지 거의 일치한다.⁴⁾

4) ③ 進上物件看品式的 ‘진상(進上)’은 1635년부터 ‘봉진(封進)’으로 이름이 바뀐다.

《첩해신어》의 권 5부터 권 8의 내용은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의 행로를 보여 준다.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 일본 족리막부(足利幕府)와 서로 사신 왕래가 부활되어 임진왜란 전까지 200년간 62회나 조선 사신이 파견되었다. ‘통신사’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난 것은 1413년(태종 13년)의 사절이었다. 이 사행은 중국(명나라)의 왜구 토벌을 앞두고 일본 국정을 탐색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박분(朴賁)을 정사로 하여 떠났으나 가는 도중에 경상도에서 발병하여 사행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통신사의 명칭을 가지고 처음으로 일본에 파견된 사행은 1429년(세종 11년)의 사절이었다. 임진왜란 전까지 ‘통신사’는 8회에 걸쳐 파견되었고, 임진왜란으로 일본과 교류가 단절되었다가 국교가 재개된 것은 17세기의 정미 통신사(1607, 선조 40년)부터이다. 이로부터 19세기까지 조선 통신사는 12회에 걸쳐 파견된다. 통신사행에 대한 기록은 경섭(慶暹)의 《해사록(海槎錄)》(1607), 이경직(李景稷)의 《부상록(扶桑錄)》(1617), 강홍중(姜弘重)의 《동사록(東槎錄)》(1624~1625), 김세렴(金世濂)의 《해사록(海槎錄)》(1636~1637), 남용익(南龍翼)의 《부상록(扶桑錄)》(1655~1656), 신유한(申維翰)의 《해유록(海遊錄)》(1719~1720), 조명채(曹命采)의 《봉사일본시견문록(奉使日本時見聞錄)》(1748), 조엄(趙巖)의 《해사일기(海槎日記)》(1763~1764) 등에 남아 있는데, 이 일록들을 살펴보면 《첩해신어》 통신사행의 시작에서 끝까지의 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 준다. 이 기록들을 통하여 《첩해신어》 권 5~8에 이르는 통신사행에서 보이는 장면들이 실제의 통신사행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1) 통신사행의 출발 일정을 알기 위해 도주사자가 부산 도착
- (2) 동래부사의 장계
- (3) 통신사행이 부산 출발
- (4) 대마도의 첫 번째 기착지 좌수내포(佐須奈浦)에서 도주사자가 통신사를 맞이함.
- (5) 대마도의 부중(府中) 포구에서 도주가 통신사를 맞이함.
- (6) 부중의 숙소에서 도주사자가 통신사를 문안함.
- (7) 부중에서 도주가 하선연을 행함.
- (8) 부중을 출발함.
- (9) 일기도(壹岐島)에 도착함.
- (10) 도주가 하륙하여 진무(振舞)할 것을 청함.
- (11) 남도(藍島)에서 축전주(筑前主)가 사자를 보내 통신사를 예후함.
- (12) 길전(吉田)에서 도주와 장로가 강호사자가 올 것을 알림.
- (13) 삼도(三島)에서 강호사자를 접견함.
- (14) 강호(江戶)에서 집정이 관백의 노문을 전함.
- (15) 도주가 등성 날짜를 통보함.
- (16) 전명(傳命)을 행함.
- (17) 무사히 전명을 끝낸 것을 축하함.
- (18) 회정길에서 '信使不受金(신사불수금)'을 언급함.
- (19) 오사카(大坂)에 도착하고, 연향할 것을 청함.
- (20) 남도(藍島)에 도착하여 무사히 항해하게 된 것을 축하함.
- (21) 대마도에 무사히 도착함.
- (22) 도주가 하선연을 행하고 통신사는 '양국 성신의 덕'을 언급함.

《첩해신어》의 권 9는 ‘여대관상약진무(與代官相約振舞)’, ‘화어검찬(和語謙讚)’, ‘일본각도주군(日本各道州郡)’이라는 절목으로 이루어졌고, 권 10은 이른바 ‘후체서간문(候體書簡文)’이라고 불리는 편지글 형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같은 《첩해신어》 안에서도 권 1에서 권 8까지 나타나는 언어와 권 10의 언어 형식을 같은 차원에서 다룰 수는 없다. 대마도 도주의 간청으로 이루어진 조선과 일본의 공무역은 예조의 허가 아래 이루어졌고, 당시 조정과 동래 부사가 발급하는 공문서는 한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왜인들을 위하여 왜학 역관들이 번역한 일본어의 서계(書契)로 전달되었는데, 왜인들이 제출하는 각종 문서와 청원서도 그들이 사용하는 후체서간문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왜학 역관들은 일본어의 이와 같은 문체를 해석해야 했으며, 이를 위하여 일본어 회화와는 다른 별도의 일본식 서계 문체의 학습이 필요했다. 권 10에 실린 것은 바로 그것이다. 권 10에 수록된 서계들은 모두 권 1~4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강우성이 부산포의 왜학훈도로 있을 때 왜인들로부터 접수한 서계들이다.

4. 결어

조선 시대에 주변 여러 국가와 외교 관계를 펴 나가기 위해 외국어 교육은 필요불가결한 일이었다. 역관들은 비록 신분은 중인 계급이었으나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역관의 양성은 과거 제도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역원에서 간행된 왜학서는 당시 일본과의 교류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회화 중심으로 엮어 낸 매우 실용적인 회화서였다. 조선 초기에는 해당국의 어린이들이 배웠던 글쓰기 교재나

서간문, 실용문 등을 중심으로 엮은 책들을 직접 수입하여 이용하였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당시 일본과의 접촉에 필요한 사항들을 장면별로 엮은 《첩해신어》를 주로 이용하였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일본어가 중세어로부터 근대어로 바뀌자, 이에 부응하여 조선에서 일본어 교재도 당시의 새로운 언어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첩해신어》의 개정이 두 번 이루어진 것은 당시 일본의 언어와 문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의 책으로는 더 이상 일본인과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선인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참고문헌

- 이기문(1965), 성종판 《이로파》에 대하여, 《도서》 제7호, 을유출판사, 3~36.
- 정 광(1988), 《사역원 왜학 연구》, 태학사.
- 정 광(2002), 《역학서연구》, 태학사.
- 정승혜(2001a), 《첩해신어》의 장면 분석을 통한 근대국어 경어법의 再考, 《텍스트언어학》 10, 231~267
- 정승혜(2001b), 사역원 왜학서의 기초적 연구, 《이광호 교수 회갑 기념 논문집》, 태학사, 421~457.
- 정승혜(2002), 한국에서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이중언어학》 21, 285~311.
- 정승혜(2003), 《조선후기왜학서연구》, 태학사.
- 정승혜(2007), 첩해신어 해제, 《첩해신어》 - 규장각자료총서 어학편(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38.